



남도답사 1번지

글/사진 • Willy기자

전남 강진

길었던 더구나 올해는 유난히 폭설도 많았던 겨울도 가고 꽃샘추위도 떠난 자리. 어느새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잔잔한 쪽빛 바다. 그리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훈풍이 살갗에 닿을 때 출기보다는 신선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나올 것 같다. 봄이 먼저 이따금 남녘의 들뜬은 이미 푸른빛이 원연하다.

남도에서 강진만큼 풍요롭고 넉넉한 곳이 또 있을까? 강진만이 깊숙이 육지까지 들어와 있어, 항상 바다 내음을 머금고, 원출산 남쪽에 펼쳐진 널찍한 평야는 구강포의 갯벌과 밭탕이 있다. 이런 자연환경 덕에 풍요로운 산물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맛깔난 음식과 인삼도 솟아난다.

어디 이뿐이라? 일찌감치 강진에는 도자문화가 발달해서 청자문화를 꽃피웠고, 지금도 대구면에서는 옛 영화를 되살리고 있다고 한다. 넉넉한 인삼이 있으니 허벨 일행 30여명이 머물던 곳도 강진이며, 그 가운데 지금까지 뿌리를 내린 이도 있다. 게다가 봄날의 강진에는 선홍빛 동백마저 흐드러지게 피고 있으니 더 무엇음 바랄 것인가.

강진의 서정시인 김영랑의 생가 영랑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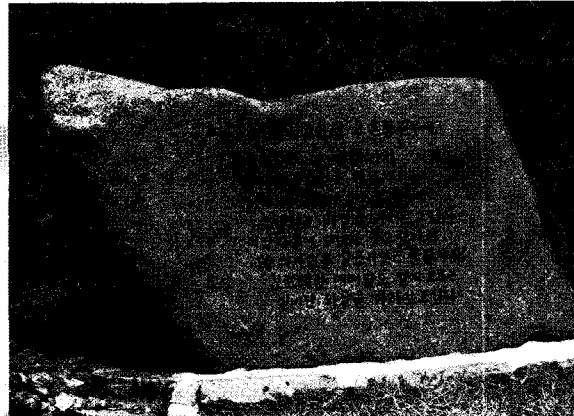
강진 사람들이 다산만큼이나 아끼고 친숙하게 여기는 일몰이 있다. 바로 강진에서 나서 정감 있는 남도사투리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서정시인 김영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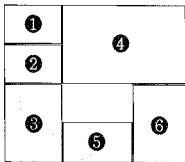
강진 읍내 곳곳에 있는 상점 간판 만해도 모란미용실, 영랑화랑 등등 수없이 많다. 그런 애정일 일찍이 영랑생가를 오롯이 보존해왔는지도 모른다. 다른 지방에서는 시인, 명사들의 생가 작업실들이 도시계획에 십사리 헐리고 훼손된다 해도 아는 이 별로 없던 것이 먹고 살기 힘들었던 우리네 현실이었다. 그것뿐인가? 몇 십년을 무심하게 내동댕이 쳤다가 관광자원이 된다 싶으니까 지방자치 단체가 나서서 부랴부랴 생가복원을 명분으로 현 주인에게 헐값매도를 강요한 것도 어제 오늘 의 일이 아니다.

영랑생가는 강진읍내 남성리 군청 옆 골목 안에 자리하고 있다. 영랑의 가족이 떠난 뒤 몇 차례 집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원래의 모습이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난 1985년 강진군에서 사들여 원형에 가깝게 보수하고 있다. 그래도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저명인사 생가의 보존방식에서 모범이 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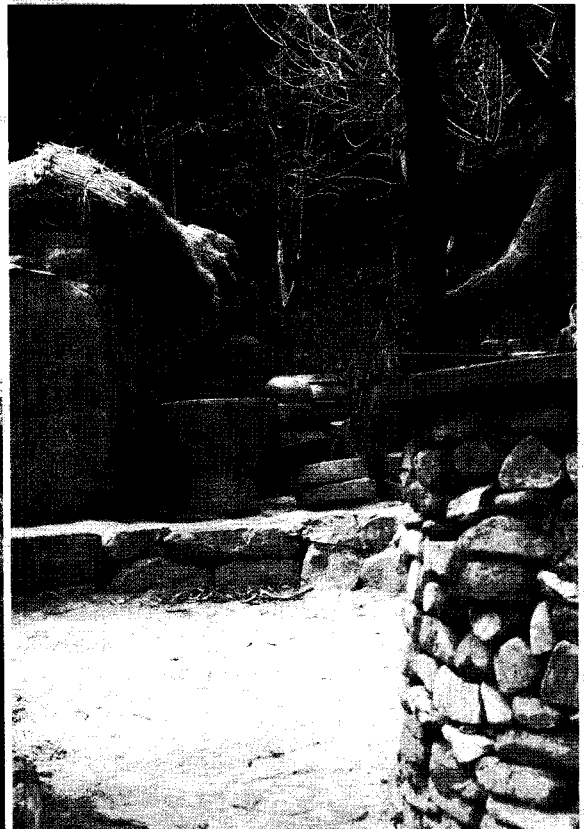
영랑생가는 현재 본채와 사랑채 2동만이 남아 있고 주변 모란밭을 포함한다. 본채는 정면 5칸, 측면 2칸인 팔작지붕이다. 아쉽게도 지난 1970년대 새미를 사업으로 지붕을 시멘트기와로 보수하였고, 기단부와 벽체는 시멘트로 발라 원형을 잃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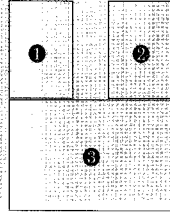
영랑의 본명은 김윤식이며 1902년 강진의 5백석 제주 김종호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강진보통학교와 휘문의숙을 거쳐 동경 청산학원 영문과를 중퇴했다. 1919년 휘문의숙 재학 때 독립선언문을 구두 안창 밑에 감추고 고향에 내려와 강진의 독립운동을 주도하다 검거되어 대구 형무소에서 6개월간 복역하였고, 1920년 동경 유학 시절 혁명가이자 무정부주의자인 박열과 같은 방에서 하숙하다가 1923년 9월 관동 대지진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했다. 1919년 3·1 운동 직후 김현구·차부진·김길수 등과 강진에서 '청구'라는 문학동인지를 발간하다가 1930년 동경 유학 때 시권 박용철과 함께 동인시 '시문학' 창간을 주도했다. 1945년 해방이되자 대한독립촉성회 강진군 단장을 맡았고, 1948년 8월부터 약 7개월간 공보처 출판국장을 역임했다. 1950년 6·25 사변 발발로 북부에 파편을 맡고 쓰러져 9월29일 4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 ① ㄱ자문 너머로 보이는 영랑생가
- ② 영랑생가의 김영랑 시비
- ③ 영랑생가의 정감있는 대문
- ④ 손님들이 머물던 사랑채
- ⑤ 영랑생가 전경
- ⑥ 아직도 사용가능한 우물을 배경으로 선 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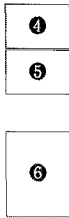


- ① 영랑생가
- ② 다산초당 가는길
- ③ 다산초당 전경





- ④ 깊은 산에 자리잡고 있는 다산초당
- ⑤ 다산이 차를 즐겨마셨던 부뚜막
- ⑥ 다산이 직접 새겨놓은 글 '丁石' 이 지금도 선명하다.



다산 정약용의 유배생활을 하던 유적지 다산초당

강진읍에서 구강포의 잔물결을 바라보면서 차를 이용해 남쪽으로 10여분 남짓 달리다 보면 다산초당이 있는 굴동마을에 다다른다. 본래 여기서 초당이 있는 만덕산 자락을 올라야 했지만, 지금은 여기서 500m 거리에 다산기념관이 만들어져 있고 그 길을 통해 다산초당으로 가는 편이 더 쉬운 길이다.

기념관에서는 그리 평탄치 않았던 다산의 삶을 조금은 평면적으로 개관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은 영조38년에 진주목사를 지낸 정재원의 넷째 아들로 경기도 광주 마현에서 태어났다. 28살 되던 해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검열, 병조참지, 형조참의 등을 지냈으면 1801년 신유사옥으로 경상도 장기로 유배되었다가 황사영 백서사건으로 다시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다산이 강진과 인연을 맺은 것은 1801년 이른바 신유박해 때문이었다. 천주교 신자로서 형 정약중은 사형을 당했고, 둘째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되었으며 자신은 강진 땅으로 유배당했다.

유배된 직후에는 거처할 곳을 얻지 못하다가 강진을 동문 밖 주막의 노파의 도움으로 방을 얻어 기거하다가 고성사의 보은산방, 제자 이학래 집 등에서 8년을 보낸 후 1808년 봄 지인들의 도움을 얻어 마침내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겼다. 여기서 유배가 풀리던 1918년 9월까지 10여 년 동안을 다산초당에서 생활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저술을 하였으며, 다산의 위대한 업적이 대부분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어떤 이는 다산이 강진에 유배되지 않았더라면 그 많은 저술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강진만을 한눈으로 굽어볼 수 있는 만덕산 기슭에 자리한 다산초당은 사실상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500여권에 달하는 조선조 후기 실학을 집대성했던 곳이다.

다산초당은 노후로 인해 붕괴되었던 것을 1957년 다산유적보존회가 복원하였 다 초당에 걸린 '寶丁山房'이라는 현판은 추사 김정희의 글씨이다.

그 후 1974년에 다산이 기거하였던 동암과 제자들의 유적처였던 서암을 복원 하였다. 동암에는 다산의 글씨를 집자한 '茶山草堂'이라는 현판이 내걸렸다.

한편 동암에서 몇 걸음 동쪽으로 구강포가 내려다보이는 곳에는 천일각이라는 정자를 한 채 지어놓았다. 이 천일각이 서 있는 산마루는 다산이 자주 올라가 먼 바다를 내다보던 곳이었다.

다산초당에는 이밖에도 다산이 '丁石'이라는 글자를 직접 새긴 정석마위, 차를 끓이던 약수인 약천, 차를 끓였던 반석인 다조, 연못가운데 조그만 산처럼 쌓아놓은 연지석가산 등 다산사경과 다산선생이 시름을 달래던 장소에 세워진 천일각이라는 정자가 있다.